

초·중등학생들의 갈등해결 교육에 관한 연구 - 교사와 학생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

이 미 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 요 약 》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합리적이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도하는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갈등해결 교육(conflict resolution education)의 본질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초·중등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사대상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교사 면담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갈등하는 상대가 '친구'이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이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보다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교육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과 교육은 학생의 도덕적 양심과 관련하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교육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해결 교육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선과 악, 양심과 비양심이 관련되는 갈등상황에서 올바른을 추구하게 하는 사고훈련이 도덕교육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과 교육과 갈등해결 교육과의 연관성을 살펴 본 결과 초등사회과 교육내용은 갈등하는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갈등해결 교육과 의미 있게 연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비판되었으나, 고교 일반사회에서는 집단갈등 관련내용이 민주시민 교육내용으로 이어지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학생들 또한 사회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 중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갈등해결교육, 사회과 교육, 도덕과 교육, 토론 학습

I .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사회적 갈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갈등은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인간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갈등을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양측의 반목이 점점 심해지고 평화적 관계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다양한 국면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여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삶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 등의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한 교육적 경험 및 인식이 부족하여 건설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상호간에 대립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은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 학생들은 학습과 생활전반에서 폭력성을 갖지 않고 평화와 안정,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보다 합리적이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포용력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교육적 과업과도 직결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주목할 때 갈등해결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 갈등이 무엇이고 그러한 갈등의 건설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갈등해결 교육의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갈등은 무엇이고 그들이 갈등해결 교육의 실제적 방법으로 적합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도덕과 교육 및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관심을 갖는 갈등관련 내용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또 학교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갈등 및 갈등해결 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갈등해결 교육의 어떤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2000), 대너(Dana, 2003), 보딘과 크로포드(Bodine & Crawford, 1998), 존스(Jones, 2000) 등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갈등해결 교육 연구동향을 진술하고, 또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연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국외 연구동향

존슨 앤 존슨(2000, p. 16)은 『갈등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저서에서, 학교 및 사회에서 폭력이 증가하게 된 현상은 오늘날의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부모 및 확대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훨씬 더 고립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는 현실과 근본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양육을 방해하는 이혼, 학대, 가난, 마약과 또 다른 제요인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과거에 학생들을 사회화시켜주었던 가정·이웃·공동체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존슨 앤 존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충분히 잘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생들은 갈등을 보다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너(2003, p. 7)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서 그 구조는 다음의 6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갈등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가 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는데, 만일 상호의존성이 높다면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욱 올라가게 된다. 둘째, 갈등해결에 관심을 갖는 집단이 얼마나 다수인가의 문제로, 관련집단이 오직 둘이라면 비교적 쉽게 갈등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집단이 많이 관계되면 될수록 갈등해결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갈등해결 과정에 대리인이 참여하는가의 문제로, 문제가 된 갈등사태에 개인적으로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대리인으로 어느 한 쪽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갈등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해 가는 경우보다 합의도출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협상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로, 갈등주체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상자로 나서게 될 때에는 그러한 협상자의 권한이 강하면 해결이 비교적 쉬우나 권한이 약하다면 갈등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갈등해결이 얼마나 급한가의 문제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파악하는 게 필

요하다. 여섯째, 의사소통 채널이 있는가의 문제로, 갈등의 주체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등해결 방법은 달라진다.

존스(2000)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환경,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 교사진 및 학교행정가들에 관련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해결 교육은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과 창의적·분석적 사고를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존스는 학교에서 갈등해결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건설적 갈등해결을 위한 비판적 기능 및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도된 특정요소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갈등해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필수적 기능 및 능력(essential skills/abilities)에는 지향능력(orientation abilities)을 비롯한 6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능력이 어떤 측면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향능력은 비폭력과 공감, 공정성, 정의, 신뢰, 인내심, 자기존중, 타인존중, 논쟁의 가치를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한 태도 등에 관련된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수용능력(perception abilities)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다름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능력, 실제에 대한 지각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감정적 능력(emotional abilities)은 분노와 공포, 좌절감을 포함한 일련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abilities)은 적극적인 청취기능을 갖는 것과,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말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섯째, 창의적 사고력(creative-thinking abilities)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각하고 해결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섯째, 비판적 사고력(critical-thinking abilities)은 갈등해결을 위한 분석과 가설설정, 예측, 전략화, 비교, 평가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며 또 객관적 증거를 확립하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 증거를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딘과 크로포드(1998, p. 13)는 학교가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교육적 사명을 인식한다면, 미래사회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인간적 경험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학생 개개인이 시민적 관계성(civil association)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익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갈등해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학교가 갈등해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핵심적인 것 6가지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해결 전략은 학교폭력과 결석률, 정학 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 기여를 한다. 둘째, 갈등해결을 위한 훈련은 학생과 교사 모두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집단적 문제해결과 협상, 중재에 대한 훈련은 높은 수준의 시민활동(citizenship activity)을 고무해 준다. 넷째, 갈등해결을 위한 훈련은 모든 학습에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기능인 듣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문제해결하기 기능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갈등

해결 교육은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하며,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개인을 상호지원해 주는 기능을 강조한다. 여섯째, 협상과 중재는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합한 문제해결 도구가 될 수 있다.

보던과 크로포드(1998)는 시민의 자격(citizenship)이라는 것이 단지 성원의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공적인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본다.

2. 국내 선행연구 분석

여기서는 강영진(2002), 정용민(2002), 이흥구(2002), 구정화(1998),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진술함으로써 그 동안 갈등해결 교육에 대해 연구된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영진(2002)은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을 일으킨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갈등 당사자 간의 요구사항이나 주장의 충돌이 분쟁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갈등의 심층부에는 대개 3가지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는 당사자의 실익이나 진정한 관심사이고, 두 번째 요소는 충족되지 않은 근본적 욕구이며, 세 번째 요소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강영진은 개인의 실익이란 상대방의 실익과 양립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보다는 실익에 맞춰 대화함으로써 상대방이 왜 특정주장을 하는지, 그 문제가 상대방에게 왜 중요한지 등을 알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강영진은 갈등의 기저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서, 갈등의 쟁점을 탐색할 때에는 그러한 근본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갈등의 근본원인 파악은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에 대한 고려까지도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용민(2002)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갈등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습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증폭된 과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기가 싫어졌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남학생들은 친구로부터 별명을 듣거나 놀림을 받을 때, 무시당할 때,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문

제를 신체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자주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함께 어울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한된 교우관계만을 유지하여 어울리지 못하게 될 때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교사와 갈등하는 주요원인은 공동체생활의 기본질서 및 약속위반으로 인한 지적에서부터, 외모와 휴대품, 복장 등에 대한 관여, 수업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돌출행동에 대한 반응, 친구나 다른 교사와의 갈등에 대해 개입하는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갈등이 어떤 것들인가를 구체화시켜 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흥구(2002)는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오직 입시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감정 대립이나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비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구정화(1998)는 여러 개인과 집단이 갈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상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여 보편적 해결방안의 제시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논쟁문제’라고 정의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논쟁문제를 정리하여 몇 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인권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 소비 및 환경관련 문제, 전쟁 등의 국제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 구정화는 우리나라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빈부격차, 수입개방, 과소비, 환경오염, 입시, 성차별, 피임과 낙태, 안락사’ 등의 16개 논쟁문제에 대한 학습자 관심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고교생들이 가장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은 입시문제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빈부격차, 성차별, 피임과 낙태, 자살과 안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모범국가로 발전하였으나 좁은 국토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사회적으로도 지역·계층·환경·노동 등의 부문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이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발전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진통이라고 보면서,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현황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중 프로그램 분석측면을 보면 현재의 초·중등학교 공식적 교육과정에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비판되었고, 교과서 수준에서 ‘갈등’, ‘갈등해결’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도덕과 및 사회과임이 논의되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선정

이 연구는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핵심이 있다. 교사인식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 고교 교사 2명을 선정하였고 중등학교사는 도덕과 교사와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대상이 6명으로 한정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구안한 기본적 질문에 기초하여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여 질적인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연구대상 수의 제한성을 가능한 극복하고자 하였다. 면담에 활용된 기본적 질문은 총 11가지로 구안되어 활용되었다.¹⁾ 학생용 설문조사의 구체적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급에서는 ‘갈등’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6학년²⁾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중학교에서도 최고학년인 3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고교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조사도구인 설문지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과 및 사회과 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배우는 최고학년인 10학년, 즉 고교 1학년 학생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갈등해결 교육에 대해 초·중등학생들과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므로, 초·중등학생용 설문지와 면담용 기초질문을 구안하고 개발하였다. 질문지 개발과정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1인과 한국 유네스코 관계자 1인, 정치학전문가 1인, 초등학교 교사 2인, 중학교 도덕교사 1인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보완하고 문항체계 및 질문방식을 정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사용한 초등학생용 설문지와 중등학생용 설문지는 각각 4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 1) 교사의 인식 분석을 위한 질문은, 현재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지, 학교교육에서 갈등해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간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갈등해결 교육과 도덕과·사회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2) 초등학생용 설문지 앞 부분에는 “갈등이란 서로의 견해나 주장, 이해 등이 달라 충돌하는 것, 혹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하는 것을 말합니다.”라는 문장을 기술해 줌으로써 응답하는 6학년 학생들이 갈등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답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 학생용 설문지 내용

설문내용	문항수
(1) 개인배경 : 성별, 지역, 학교소재지, 학교규모, 학급당 학생수, 학교설립유형	6
(2) 학생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	1
(3) 자주 갈등하는 상대	1
(4) 갈등빈도	1
(5) 친구들과 갈등하는 이유	1
(6) 갈등을 겪을 때의 심리상태	7
(7) 갈등에 대한 의논상대	1
(8) 학교에서 갈등해결 교육을 받는 정도	1
(9) 도덕과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도	1
(10)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 량에 대한 인식	1
(11) 사회과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도	1
(12)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량에 대한 인식	1
(13) 도덕 및 사회과 갈등관련 내용의 실생활 유용성	1
(14) 갈등해결 교육의 실제적 방법	1
(15) 도덕 및 사회 이외에 갈등해결 교육을 받고 싶은 교과 및 영역	1
(16) 인간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9
(17) 갈등해결에 대한 관점	3
(18)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인식	5

본 고에서는 학생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 도덕과 및 사회과 갈등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도, 갈등해결 교육의 실제적 방법,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문헌연구 수행, 연구대상 선정, 교사면담 실시, 학생대상 설문조사 실시, 조사결과 분석 및 기술의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각 절차의 주요사안을 간략히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연구

학교 및 사회에서 점증되고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갈등해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문적 근거를 다룬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국내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나. 면담실시

초·중등학교 교사 6인과의 면담은 2004년 2월 9일에 시작되어 3월 30일에 완료되었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승인하에 녹음된 면담내용을 연구자가 전사(transcribe)하였다.

다. 설문지 개발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학생인식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 결과 및 면담결과에 기초하여 1차 문항을 개발하고 2004년 6월 11일에 교육과정 전문가 1인, 한국 UNESCO관계자 1인, 정치학 전문가 1인, 초등학교 2인, 중학교 도덕교사 1인과 문항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협력적으로 수행하였다. 협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문항을 정련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등학생용 문항과 중등학생용 문항이 개발되었다.

라. 설문조사 실시

2004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1,340명의 학생응답이 결과분석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마. 결과분석

- 1)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그 빈도, 갈등에 대한 의논상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이나 그 상대 등이 학생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초·중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분석

이 장에서는 갈등해결 교육에 대해 교사면담을 실시한 질적 결과를 보다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관계되는 학생설문 분석결과를 연관 지어 제시함으로써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교사·학생 인식을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초·중등학생들에게 심각한 갈등

먼저 초등학교사와의 면담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초등학생 중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룹으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또 최근에는 가정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L교사가 진술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본다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학습성취도에 따라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아이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어떤 강자와 약자 간에 갈등이 있는데, 아이들의 갈등은 결국 교우관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이 왕따의 대상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측의 어떤 부도덕한, 무리가 되는 요구에도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 종략 ... 아이들 사이에서도 학습성취도가 높으나 낮으냐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아이들은 체육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런 걸 잘하면서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도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급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가 되는 아이들이 약자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2004. 2. 9. L교사와의 면담내용).

상술한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L교사는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결국 교우관계 갈등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의 요구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게 됨을 언급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L교사의 진술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응답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갈등

가장 심각한 갈등	빈도	%
(1)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	81	17.6
(2) 학교에서의 신체적 폭력	11	2.4
(3) 학교에서의 언어적 폭력(약 올리기, 욕하기, 별명 부르기 등)	77	16.7
(4) 외모에 대한 열등감	52	11.3
(5) 시험과 성적으로 인한 부담	183	39.7
(6) 진로문제	20	4.3
(7)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가정문제	13	2.8
(8) 가정에서의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6	1.3
(9) 마음 속의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갈등	7	1.5
(10)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	3	0.7
(11) 종교가 달라 일어나는 문제	1	0.2
(12) 기타	7	1.5
합계	461	100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약 18%가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갈등이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이라고 응답하여, 초등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에 대

한 1순위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³⁾ 한편 중학교 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오늘날 중학생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들은 주로 성적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거나 자기정체성 문제로 인해 갈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H교사가 언급한 내용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성적이라든가 자기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teacher boy, 집에서는 mama boy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를 학생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갈등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 중략 ... 그리고 학원에서 거의 반기계적으로 공부하고, 부모에 의해 공부하고 ... 그러다 보니 과제가 있어야 뭐 공부를 한다든가 또 학원에서 무언가 지도해 줘야 거기에 따라간다든가 ... 스스로 자기가 필요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뭘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교사에 의해, 학원교사에 의해, 부모에 의해 의존적으로 순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의존적인 아이를 teacher boy라고 해요. 그런 걸 스스로 헤쳐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2004. 2. 18. H교사와의 면담내용).

고교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학생들이 강남·강북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자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하면서 강남으로 전학을 가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또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면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학년 학생들 수업을 여러 반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은 강남으로 전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강남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나, 그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윤리 교과서에는 부가 세습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학생들도 부에서 오는 문제를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과의 관계갈등이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말을 들어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봐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형태로든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불편함, 불평, 거리감, 소외감 뭐 이런 차별, 비교에 대한 갈등, 또 선생님들이 복장이나 두발 이런 것에 대해 말하는데, 왜 선생님은 복장과 두발에 대해 지나치게 하나냐는 거죠. ... 중략 ... 그리고 진로에 대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윤리 수업과 관련해서 이틀테면 학생들이 가치 갈등 이런 것도 참 심각하게 해요. 이틀테면 3학년 학생 중에는 촛불 시위진압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을 하기도 해요(2004. 3. 23. E교사와의 면담내용).

3) 첫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시험과 성적으로 인한 부담'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갈등을 보다 포괄적인 견지에서 분석하기 위해 개인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심각한 고민, 욕구 등을 갈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았다.

상술한 면담내용은 고교생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갈등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교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고교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E교사의 진술과 의미 있는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고교생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	빈도	%
(1) 노사 간의 갈등	49	12.5
(2) 빈부 간의 갈등	108	27.6
(3)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52	13.3
(4) 사회계층 간의 갈등	46	11.7
(5) 지역 간의 갈등	11	2.8
(6)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	32	8.2
(7) 세대 간의 갈등	52	13.3
(8) 남북한 간의 이념갈등	38	9.7
(9) 기타	4	1
합계	392	100.0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28%가 빈부 간의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의 심각성을 주목한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2. 갈등해결 교육의 필요성

갈등해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한국사회가 다원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흐름을 보다 잘 소화해 내기 위한 갈등해결 교육이 요청된다는 점이 진술되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갈등해결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비춰 그 필요성이 생각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다원화되어가고 있잖아요. 동질적인 사회에서 다원화되어가는 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심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고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동질화되어 있었으니까 갈등이 억압되고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노사, 빈부, 남녀 간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표출되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그건 아직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원화의 흐름을 우리가 잘 소화하기 위해 갈등해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004. 2. 18. S교사와의 면담내용).

S교사는 한국사회가 동질적 사회에서 다원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개인 및 집단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주장만 있고 합리적 조절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각각의 입장들이 조절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3. 갈등해결 교육의 실제적 방법 및 활동

갈등해결 교육을 위한 실제적 방법으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교사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토론의 교육적 의의를 강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법을 얻어낼 때가 있습니다. 도덕교과서에 장애인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나와 그것에 대해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딱 시간에 맞춰 와야 되는데 늦게 왔을 때, 장애인들이 온 경우에는 먼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장애인이라고 해서 먼저 해 줘야 하나요 거죠. 그럴 때 장애인들이 왜 우선 먼저 하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제시해 주면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 하다가 '아! 장애인들은 일단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것, 공평한 것이구나, 평등한 것은 차별 받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얘기들을 스스로 하면서 결론이 내려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2004. 2. 9. L교사와의 면담내용).

초등교사인 L교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아동들이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게 토론을 지도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갈등해결 교육방법으로서 토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진술해 주었다. 중학교교사인 H교사와의 면담에서도 이와 일관된 맥락의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하는 걸 보면 발표수업을 해요.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표현하는 방법,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 글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국어시간에 말하기 과제를 할 때 한다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미리 정리해 표현하는 그 정도이지 어떤 대화상대가 있고 의사소통을 통해 뭔가 상대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응하는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역시 그 갈등당사자 간의 대화·토론 이런 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교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 종략 ...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직접적인 갈등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갈등해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정치권에서 싸우고 하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2004. 2. 18. H교사와의 면담내용).

고교 교사인 E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현장감 있는 갈등사례에 대한 토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이 언급되었다. 초·중등학생들에게 갈등을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는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진솔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초·중등학생들이 유용하다고 보는 갈등해결 교육방법 및 활동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활동	빈도	%
(1) 명상	165	12.7
(2) 대화·토의	293	22.6
(3) 상담	199	15.4
(4) 갈등을 소재로 한 역할극	60	4.6
(5) CD나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로 다양한 갈등사례 보기	312	24.1
(6) 갈등과 관련된 시사문제 탐구	26	2.0
(7)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43	3.3
(8) 갈등해결을 주제로 하는 캠프	170	13.1
(9) 기타	27	2.1
합계	1295	100.0

학교에서 갈등해결 교육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여 조사한 결과 ‘대화화 토론’이 23%로 나옴으로써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생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이명준·이미숙, 2004, p. 179). 교사면담을 통해 논의된 또 다른 교육방법으로는 다양한 영상매체 활용이 있다. S교사는 갈등의 피해나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교육내용은 image로 다가오게 할 때 보다 확실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갈등에 대한 것을 글로 주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다가오게 할 때 확실히 와 닿거든요? CD랄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어요. ... 중략 ... 학생들이 영상세대기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말로 백날 들어 봐야, 몇 %가 굶고 있고 이걸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 이미지로 다가오게 하는 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찾아보죠, 자료를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일이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중략 ... 그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거나 안내를 해 주시면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는 정보관이 있어서요, 교실에서 보면 CD가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정보관에는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너무 좋지요. ... 중략 ... 학생들은 인터넷 처 보는 것 좋아하거든요. 찾아보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 중략 ...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다행히도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있어서요(2004. 2. 18. S교사와의 면담내용).

S교사와의 면담내용을 볼 때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으로는 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시각자료 제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23%가 'CD나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로 다양한 갈등사례 보기'가 유용한 교육방법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영상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갈등사례를 다양한 매체로 제시해 주고 그러한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며 토론하게 하는 교육방법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적 활동에 대해 학생성별 및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활동에 대한 성별·지역별 차이

성별·지역별 차이		명상		대화·토론		상담		갈등을 소재로 한 역할극		CD나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갈등사례 보기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07	15.6	159	23.2	73	10.6	31	4.5	195	28.4
	여자	58	9.6	133	21.9	126	20.8	29	4.8	117	19.3
전체		165	12.8	292	22.6	199	15.4	60	4.6	312	24.1
지역	대도시	49	12.8	115	30.0	47	12.3	20	5.2	80	20.9
	중소도시	92	13.6	131	19.4	113	16.7	33	4.9	167	24.7
	읍면 지역	23	10.0	46	20.1	38	16.6	7	3.1	65	28.4
	전체	164	12.7	292	22.7	198	15.4	60	4.7	312	24.2
성별·지역별 차이		갈등과 관련된 시사문제 탐구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갈등해결을 주제로 하는 캠프		기타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5	2.2	22	3.2	72	10.5	12	1.7	686	50.68021**
	여자	11	1.8	21	3.5	98	16.1	14	2.3	607	
전체		26	2.0	43	3.3	170	13.1	26	2.0	1293	
지역 규모	대도시	8	2.1	15	3.9	42	11.0	7	1.8	383	31.17422*
	중소도시	14	2.1	19	2.8	98	14.5	9	1.3	676	
	읍면 지역	4	1.7	9	3.9	29	12.7	8	3.5	229	
	전체	26	2.0	43	3.3	169	13.1	24	1.9	1288	

* : $p < .05$, ** : $p < .01$

CD나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갈등사례를 보는 것에 대해 남학생의 28%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비해 여학생 중에서는 19%의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 교육을 위한 방법에 대해 남녀학생이 인식하는 바는 유의도수준 .01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상매체를 통해 갈등사례를 보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반응한 지역은 읍면 지역으로서 28%의 읍면 지역 학생들이 1순위로 응답하였고 중소도시 학생들은 25%, 대도시 학생들은 21%의 비율로 반응하였다. 갈

등해결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인식은 유의도수준 .05에서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덕과 교육과 갈등해결 교육

교사들에게 현재의 도덕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갈등해결 교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갈등해결 교육의 견지에서 볼 때 현행 도덕과 내용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먼저 초등교사가 도덕과 내용과 갈등해결 교육을 연계하여 진술한 바는 다음과 같다.

올바른 것, 선과 악 내지는 양심과 비양심이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사고의 훈련이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중략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과에서 학습목표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가르치기 위해 처음에 사례로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예시로 많이 보여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런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는 갈등상황이 굉장히 여러 번, 거의 매시간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어떤 것일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 중략 ... 지금 아이들이 4학년 1년 동안 배워야 될 덕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외운다고 해서 실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라도 교사들이 재량껏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2004. 2. 9. L교사와의 면담내용).

L교사는 선과 악, 양심과 비양심이 복잡하게 관련되는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고를 훈련해 가는 과정이 초등도덕과 교육과 갈등해결 교육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임을 진술하였다. 중학교 도덕교사인 H교사는 도덕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도덕과도 갈등과 관련해서 가치갈등 단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학생들의 갈등해결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치판단을 할 때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떤 판단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식의 수업모형을 교사가 많이 활용하면서 단원을 소화해 내면 가치갈등과 관련된 수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해야 할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고려라고 봐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떤 소수자나 약자들이 겪는 그런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큰 틀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미시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관점에서 교과서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노사 간의 갈등도 노사 간에 잘 화합을 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현실을 반영해서 교과서내용이 기술되면 좋겠고 그게 현재로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교사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갈등해결의 차원에서 볼 때 필요하지 않나 ... 종략 ...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익히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욕구나 욕망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갖게 하려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2004. 2. 18. H교사와의 면담내용).

초등교사 및 중학교 도덕교사와의 면담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들은 도덕적 양심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도덕과에서 다루는 것이 갈등해결 교육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덕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관심 또한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초등도덕과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초등학생들이 도덕과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갖는 관심

초등도덕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	빈도	%
(1)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167	36.9
(2)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46	10.2
(3) 친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20	4.4
(4)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4	0.9
(5)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175	38.6
(6) 사회문제와 관련된 갈등	21	4.6
(7) 민족의 분단과 관련된 갈등	13	2.9
(8) 기타	7	1.5
합계	453	100.0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생들은 도덕과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 중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7%에 달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의 도덕과 교육내용 중에서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시사해 준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 2>에서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갈등이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8%로 나타난 것과도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들이 중학교 도덕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중학생들이 도덕과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갖는 관심

중등도덕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	빈도	%
(1)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166	40.3
(2)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47	11.4
(3) 친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15	3.6
(4)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9	2.2
(5) 교우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87	21.1
(6)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87	21.1
(7)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	54	13.1
(8) 사회문제와 관련된 갈등	54	13.1
(9) 민족의 분단과 관련된 갈등	29	7.0
(10) 기타	16	3.9
합계	412	100.0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도덕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1순위로 관심을 나타낸 것은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우 및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윤리교사인 E교사는 현재의 윤리과 내용 중에서 앞으로 학생들의 실제적 갈등해결에 보다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통윤리 쪽에 초점을 두어 언급하였는데, 이로우와 의로움을 동시에 추구했던 전통사회 윤리에 대한 지도는 고교생들이 장차 경제생활을 해 나가면서 경험하게 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가치교육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생명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추구하는 상생적 목적이 갈등해결의 근본적 해법 및 원리로 지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5. 사회과교육과 갈등해결 교육

교사들에게 현재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갈등해결 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는지, 또 갈등해결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사회과 교육내용에 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등을 질문하였는데, 초등교사가 사회과 내용에 제시된 갈등해결 교육내용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한 면담내용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노사갈등이나 다른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책은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갈등이 흔한지 이쪽저쪽 간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애들이 찾기는 힘들어요. ... 중략 ... 아이들이 다 그때그때 찾기에는 힘들거든요 (2004. 2. 9. I교사와의 면담내용).

I교사는 현재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다루어지고 있는 갈등관련 내용은 갈등유형을 간략히

제시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갈등하는 양측의 입장이 포함된 사례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고교 사회과 교사인 Y교사는 일반사회 교과에서 집단갈등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많음을 진술하면서 사회과교육과 갈등해결 교육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고1 일반사회에서 집단갈등이 차지하는 부분이 60% 이상이었던데요. 7차 교육과정에서 고1 사회 앞부분은 지리이고 뒷부분은 일반사회인데 집단갈등, 이런 갈등 문제라는 게 1/2을 차지하고 있는데 ... 사회과 교육목표라는 게 흔히 민주시민교육, 민주 시민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이데올로기 극복이라든가, 민주주의가 뭐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집단갈등이라는 건 주제 자체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 중략 ... 기존의 사회교과서는 나중에 자기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의 교과서에는 지식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집단갈등이라는 용어 외에는 한두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요런 정도가 있지 그 외에는 개념, 용어 그런 것 없어요. ... 중략 ... 탐구과제 자체예요. 2학년부터는 심화선택으로 되어 있어 더 그렇고 1학년은 문·이과 공통으로 하게 되죠(2004. 3. 29. Y교사와의 면담내용).

Y교사는 집단갈등이라는 교육내용이 고교 일반사회의 핵심적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민주 시민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갈등해결에 대한 탐구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의미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고교생들이 사회과 갈등관련 내용에 대해 갖는 관심

사회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	빈도	%
(1)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158	39.9
(2)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갈등	21	5.3
(3)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	20	5.1
(4) 자원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30	7.6
(5) 종교의 다름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	11	2.8
(6)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33	8.3
(7) 국가권력과 시민 간의 갈등	48	12.1
(8) 남북한의 이념갈등	18	4.5
(9) 국가 간의 경쟁에 의한 갈등	52	13.1
(10) 종족 간의 분쟁	9	2.3
(11) 기타	10	2.5
합계	396	100.0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사회과에 제시된 갈등관련 내용 중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

등'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학생들의 40%가 이 내용을 1순위 관심내용으로 주목하였다. 사회과교육이 갈등해결 교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과 면담한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사회과에 갈등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단순히 어떤 갈등이 있음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갈등하는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교 교사의 경우에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실현에 있어서 갈등해결 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일반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갈등 관련내용이 민주시민 교육내용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 또한 이에 관련되는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Jones(2000)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환경,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왔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환경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체계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해결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등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 고교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심층적 면담을 실시하였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340명의 초·중등학생 응답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초등교사들과의 면담결과,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결국 교우관계 갈등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생들은 자신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갈등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로서, 1순위 응답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교사들이 본 현상이 학생들의 실 세계에서 주요한 사안임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성적과 자기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진술하였는데, 학생들이 스스로의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교사에 의해, 학원에 의해, 부모에 의해 의존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점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교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부모의 사회계층적 차이가 자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갈

등이 일어나고 있음이 진술되었다. 고교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빈부 간 갈등’이라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면담결과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갈등해결 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면담한 결과, 현 단계의 한국사회가 다원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원화의 흐름을 보다 잘 소화해 내기 위한 갈등해결 교육이 요청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갈등해결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면담한 결과, 현장교사들은 ‘토론’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갈등해결 방법을 얻어낼 때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토론수업이 보다 의미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보다 질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갈등해결 교육은 글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다가오게 할 때 보다 확실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CD와 같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초·중등학생들 또한 갈등해결 교육의 방법으로 대화 및 토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CD나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로 다양한 갈등사례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에게 현재의 도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이 갈등해결 교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선과 악이 복잡하게 관련되는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고를 훈련해 가는 과정이 도덕과 교육과 갈등해결 교육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었고, 학생들 또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갈등해결 교육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담한 결과, 민주 시민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통해 지도하는 것보다는 갈등해결에 대한 탐구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민주 시민 교육이 될 수 있음이 언급되었고,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사회과에 나오는 갈등관련 내용 중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보다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이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갈등하는 상대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갈등이 ‘친구 사이에서의 따돌림’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반면 갈등을 경험할 때의 의논상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상 또한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조사결과는

4)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갈등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여 조사한 결과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생들이 갈등을 경험할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여 해결을 모색하는지 조사한 결과 ‘친구’와 의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 고민한다는 학생이 32%, 어머니와 의논한다는 학생이 20%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가족이나 교사보다는 친구들과 더불어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생들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갈등해결 교육을 위해 대화기법 및 토론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잘 준비된 토론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갈등의 해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음을 그들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진술하였으며, 오늘날의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선호하는 매체적 접근의 장점을 적절한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식 또한 이와 일관됨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 기능훈련에 기초하여 토론수업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는 과정과 CD나 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갈등사례를 접하게 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해결 교육을 범교과학습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재량활동을 통해서도 갈등해결 교육이 실시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국어과 교육과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갈등해결 교육이 재량활동 및 여러 관련교과 분야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이 현 단계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이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 대한 갈등해결 교육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빈부 간의 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향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작업에서 이러한 측면들이 고려되어 교육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진(2002). 중재의 절차와 기법.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평화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자료집, 203-231.
- 구정화(1998).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7, 167-190.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 이명준·이미숙(2004). 초·중등학교의 갈등해결 교육에 관한 연구-도덕과 및 사회과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4.
- 이흥구(2002). 학교갈등과 대응방식 분석-고등학교-.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평화 교육 프로그램-사례발표 및 자료집-, 195-202.
- 정용민(2002). 학교갈등과 대응방식 분석-중학교-.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평화 교육 프로그램-사례발표 및 자료집-, 189-194.
- Bodine, R. J. & Crawford, D. J. (1998).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A Guide to Building Quality Schools*. San Francisco: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and Jossey-Bass.
- Dana, D. (2003). Conflict resolution - Mediation tools for everyday worklife -. 하지현 역. 갈등해결의 기술. 지식공작소.
- Johnson, D. & Johnson, R. (2000). Reducing school violence through conflict resolution. 추병완·김영은 역. 갈등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도서출판 백의.
- 논문접수 : 2005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5년 11월 14일 / 게재 승인 : 2005년 11월 28일

ABSTRACT

A Study for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CRE) of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eachers & Students

Mi-Sook Le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fundamental value and necessity of CRE and give some useful impl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6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the survey results of 1,340 students were analysed. Moral and Social Studies from grade 3 to 10 were focused among 10 subjects in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because those subjects treat the contents of CRE more directly than other subjects. The main points discussed in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students experience serious conflicts in the relation with their friends most frequently than any others and the most difficult conflict as for Korean students is getting the brush among their friends. Second, Moral treats the conflicts in one's mind related to moral consciousness of personal students as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concern of students about such a matter is relatively high. Third, the educational contents about group conflicts in Social Studies in high school level can be connec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very appropriately and students concern the conflicts between youth and adults among the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conflicts in Social Studies.

Forth, both teachers and students think learning by debate and viewing various cases of conflicts by media very importantly as the practical method for CRE. Fifth, high school students replied in survey that the most serious conflicts in Korean society is the conflicts between rich and poor.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the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th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and the conflic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s other serious conflicts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CRE should be strengthened reflecting those aspects and continuous efforts to solve those conflicts are asked.

Key Words :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moral, social studies